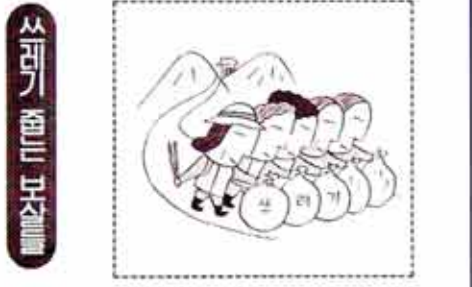


4일 오후 북한산 인구 쓰레기장, 머리가 희끗희끗한 5명의 중년 보살들이 양손에 무거운 오물 봉투를 들고 산에서 내려 오고 있다. 등산복 차림에 '경북환경모임'이란 글씨가 등에 선명한 녹색 조끼를 입고 짐계를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이 여사름이 아니다. 얼굴과 옷에는 땀과 오물이 흠뻑 묻어 있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있다.  
 임순자(65) 공부자(56) 이정옥(54) 소용배(54)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인증캠페인**  
 김영숙(44) 보살은 3년동안 매주 수요일 북한산 도봉산 등 서울 근교 명산의 등산로와 계곡에서 쓰레기를 주워 왔다. 구상 직원은 아니지만 IMF사태 이후 더욱 늘어났던(?) 단골 등산객들에게는 이미 낯이 익었다.  
 이들 5명의 보살은 환경캠페인이 무리였던 지난 95년 5월 조계종의 청정국토한마당 행사를 앞두고 결성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환경소모임에서 인연을 맺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산행을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매주 한번도 거르지 않게 되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문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어 <http://www.buddhapia.com>

## “직장법회 IMF화두 푼다”

기도정진·발우공양·이웃돕기·절약운동 등 적극 동참

‘IMF 화두’ 불심으로 푼다. 법회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직장생활을 해 온 불자 직장인들이 절약운동 수련회 성지순례 기도정진 등을 통해 불심을 재점검하면서 IMF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일체개고 재행무상(一切皆苦 諸行無常)’의 가르침을 되뇌이며 ‘무소유(無所有)의 삶’을 지향해 온 직장법회 회원들에게는 IMF사태가 그리 큰 괴로움이 아닌듯 하다. 경남 거제 대우중공업 소속 불자모임인 대우불교청년회(회장 이봉년)는 이달부터 △재활용품 사용하기 △식수·화장지 아껴쓰기 △전기·유류 절약하기 등 IMF절약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거제불교회관 설법전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1080배정진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백여 정회원의 50% 법회참석과 50명 신규회원 확보를 의미하는 ‘50·50운동’도 펼친다.  
 서울 지하법원회(회장 신철호)는 10일 잠실법당에서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화합기 도법회’를 봉행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금강석 같은 불심을 다지기 위해 경전공부 및 기초교리강좌도 개설할 계획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IMF 화두가 잇달아 생기는 가운데 경기 남양주 불암사(주지 일연)가 ‘자비의 쉼터’를 개원했다. 회원제로 운영될 쉼터는 불암사 중추당에 30여평 규모로 마련됐다. 책상, 전화, 컴퓨터 등을 갖추고 신문 및 취미관련 서적 등이 준비돼 있다. 또 ‘참선교실’ ‘명행정진기도’ ‘사경과 발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불암사 법일스님이 상주하며 지도한다. IMF 쉼터는 전국 20여곳에 설치됐다. <관련기사 20면>

## “조계종 중단개혁 긍정적” 42%

본말사주지 654명 설문  
 ‘개·사 운동’ 57% 찬성  
 조계종 본말사 주지스님들은 중단개혁불사에 대해 42.1%가 ‘공감한다’는 견해를, 38.1%와 14.2%가 각각 ‘보통’과 ‘비관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승가 교육제에 대해 64.7%가 만족한다고 평가했으며, 반대한다는 견해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 교육원(원장 안도)이 지난해 6월 열린 본·말사 주지연수회에 참석한 주지스님 6백5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로 드러난 것. 설문에 답한 스님들은 총무원의 주지인사행정에 대해 23.4%가 만족, 22.6%는 불만을 표해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담금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33.1%)는 응답이 ‘공정하다’(25.6%)보다

## 불교교과서 일반중학교에 보급

서울시교육청 인가  
 중학교 종교(불교)교과서를 일반학교에도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불교교육연합회(회장 송석구 동국대총장)가 관찬한 종교(불교)교과서가 1월23일 서울시 교육청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12일 왕성본이 제출되는데로 대안정사에서 간행되는 종교(불교)교과서는 일반학교의 요청에 따라 정식교과서로 채택된다.  
 종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할 수 있는 90년도 교육조치에 따라 96년 불교고등학교 종교과목이 승인됐으며, 현재 기독교 중등과목에 이어 종교로는 2번째 이뤄진 것이다.  
 경제난 극복 지원법회 세업등회·자민련 불자회 20일 불교방송 대법당서  
 국민회의 의원불자모임 연등회(회장 박상규)와 자민련불자회(회장 박철인)는 20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경제난 극복과 국민회화를 위한 지원법회’를 봉행한다.

## 불교문화 체험학교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본사가 주최한 불교문화 체험학교는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차, 목각, 도예, 불교의식, 좌선 등 불교문화를 이론과 현장교육을 통해 배울수 있는 불교문화 체험학교를 엮는다. 불교유적 탐사와 함께 불교문화의 산 교육장이 될 불교문화 체험학교에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월별 계획**  
 3월: △3월의 독립운동기 용성스님 유적지 방문-천안 독립기념관 유물유품전시, 선산 모래민, 도리사, 서울 대각사  
 4월(2회 개최): △세계적 성보 보관대장경 정대불사 등불-해인사 △ 수묵사, 개성사, 서산 마애삼존불  
 5월: △다산일미의 세계-생계사, 차 축제, 제다원장  
 6월(2회 개최): △보훈의 달, 6.25 격전지를 방문하며 통일 발원-도파사, 철원 노동당사, 땅굴 △철장사, 석남사  
 7월(2회 개최): △은5월 예수재 등불-등명나사, 메밀 꽃 필 무렵의 산실 이효석생가 △참사람 결사 등불-장성 백암사  
 8월: △연꽃으로 피어난 불상-연꽃재 참가-아산 인취사  
 9월(2회 개최): △목불상 제작 시연-신록사, 고당사지, 목야박물관 △은혜사 거조암 문운사  
 10월: △책의 날 기념 보관대장경 판각성지-선원사지, 정동사, 무예원(성불스님 도예실 견학)  
 11월(2회 개최): △고인쇄박물관 탐방-법주사, 흥덕사지 △만해정신 살피기-백담사  
 12월: △부모은중경관 참배하며 한해 마무리-용주사, 수원회암  
 ▲접 수 처: 현대불교신문사 (02) 722-4162 혜조여행사 (02) 733-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 (신청호)  
 ※3월 불교문화 체험학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조여행사

## 문화재관리 ‘없던일로’ 지자체이관

관리국업무 현행대로...인원 10%감축 예정  
 문화체육부가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문화부 로 개편되는 가운데 문화재관리국의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인력은 10%정도 감축될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위원장 박관성)는 일부 문화재 관련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안을 백지화하고 문화재관리국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의 인원 10%감축을 위한 직인원확약등 내부 조율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학제적 보다는 일반 행정적 종사자가 감축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문화재관리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위원회는 내부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화부 조직개편과 관련 종교관련 부서의 인원감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며 피부미용을 중요시합니다.

### 신도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자연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바쁜 일상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아름다움!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연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항방재로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연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력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이지,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 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도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배출,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켜,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을 부여한 첨단생명공학력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신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이나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민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저서대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보다도 탁월한 생리활성·수용성·첨단기공학적 제품입니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 내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